

주간 통일정세

2015-35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저촉되는 언행 삼가라”(9/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는 2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은 어렵게 마련된 북남관계의 개선 분위기에 저촉되는 언행을 삼가하여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공동보도문 발표 이후 남조선에서는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언행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현 상황을 방치해 두는 경우 북남관계는 기필코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은 특히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합의한 공동보도문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해석하는 것은 남한의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총포탄을 쏘아대며 합의 이행을 떠드는 것은 철면피한 행위”라고 비난함.
- 북한, 박 대통령 한중 정상회담 발언에 “극히 무엄하다”(9/3,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해외 행각에 나선 남조선 집권자가 우리를 심히 모욕하는 극히 무엄하고 초보적인 정치적 지각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함.
 - 조평통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의 비무장지대 도발 사태’니 ‘언제라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느니 하면서 최근 조성된 사태의 진상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그 누구의 ‘건설적 역할’까지 운운했다”며 이유를 설명함.
 - 대변인은 이어 “남조선 집권자가 엄연한 사실을 날조하면서 해외에 나가서까지 추파를 던지는 것을 보면 말로는 화해와 협력을 운운하지만 진짜 속심은 그 누구에게 기대여 동족대결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특이사항 없음.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북한, 2017년 무주 태권도대회 참가 긍정적”(8/31, 미국의소리)
 - 리용선 ITF 신임 총재는 3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F)이 주최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 리 총재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우리에게 요청하면 우리 아무 때나 보내고 또 그 사람들도 올 수도 있고, 서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함.
- 북민협 “북측에 민간단체 협의 이달 내 개최 제안”(9/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국내 59개 대북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2일 “북측에 9월 안으로 남측 민간단체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개최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이어 북민협은 “북한이 남측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을 여러 이유로 보류하는 실정”이라며 “북측은 새로운 시대 미래지향적인 인도적 지원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남북고위급접촉 공동보도문 발표는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 계기’라며 ‘북과 남은 이번 합의를 민족 앞에 지닌 성스러운 의무로 자각하고 그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8.31, 중앙통신·노동신문)
-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은 민족의 이익을 해치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만을 야기 시킬 뿐’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외세와의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중지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적극 호응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8.31, 중앙통신·노동신문)
- ‘8.25 남북합의’ 관련 “북남관계는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개선될 수 없다”며 ‘△대결정책 전환, △북남관계의 우리 민족끼리 관계로 유지, △남북합의 이행 준수’ 강조(9.1, 중앙통신·노동신문)
- ‘북남고위급접촉 합의를 토대로 북남관계를 획기적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올려 세우자면 현 정세흐름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남합의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가 아니면 빈종이장에 그치고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남당국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강조(9.3, 중앙통신·노동신문)
- ‘8.25 남북합의’ 관련 “북과 남은 더 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남북합의 자세와 입장 견지, 북남관계 개선의 건설적 분위기 마련 위한 용단’을 주장(9.4, 중앙통신·노동신문)
-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상은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라며 ‘비록 시련과 난관은 있지만 대화와 협상으로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기 위해 성의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9.5, 중앙통신·노동신문)
- 보수언론들의 對北발언(북핵포기, 10월 도발가능성 등) 관련 ‘남북관계 개선의 싹을 짓뭇개버리려는 고약한 망동’이라고 비난 및 ‘정세흐름을 잘 유지 관리해야 할 때’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저해를 주는 불순한 언동을 걷어치우고 대화와 협상의 흐름에 적극 합류할 것’을 주장(9.5,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언론들의 대북 발언(北 10월 도발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이 보수털거지들의 대결망동에 대해 감싸주고 있다’며 ‘어렵게 마련된 북남합의가 남조선 당국의 동족대결 행위로 빈 종이장으로 될 수 있다’고 주장(9.6, 중앙통신·민주조선)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특이사항 없음.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주북 中대사 북중혈맹 강조…“김일성은 동지이자 친구”(8/31, 연합뉴스)
 - 리진권(李進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내달 3일 중국 70주년 전승절을 앞두고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을 ‘동지’이자 친밀한 친구로 규정하며 북중 혈맹관계를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리 대사는 “잔혹한 일본 식민통치에 저항하기 위해 조선(북한)의 많은 지사가 중국으로 와 항일투쟁을 전개했다”며 “특히 중국인민의 친밀한 친구인 김일성 동지는 동북항일연군과 함께 동북지방에서 용감하게 일본에 저항했다”고 소개함.
 - 이어 “중국 인민들은 이를 마음속에 영원히 깊이 새기고 양국 혁명 선열이 목숨과 피로써 맺은 중조 우의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전함.
- 북한, 최룡해 방중 보도…노광철 군 상장 동행(9/2,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은 2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대표단이 중국에서 진행되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승리 70돌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2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함.
 - 조선3명으로 구성된 이번 방중 대표단에는 최 비서 외에 노광철 인민무력부 제1부 부장, 아시아 담당인 리길성 외무성 부상이 포함되었으며, 최 비서와 일행을 평양 국제공항에서 리진권(李進軍) 북한 주재 중국 대사, 리일환 노동당 부장, 신흥철 외무성 부상 등이 전송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中열병식 ‘구석 관람’ 최룡해 벌써 귀국…사실상 ‘빈손’(9/3, 연합뉴스)
 - 3일 베이징 소식통들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광장에서 열린 중국의 항일전쟁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북한 대표단을

- 이끌고 참석했던 최 비서는 오후 평양으로 돌아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전날 2일 오후 선양(瀋陽)을 경유해 베이징에 도착했던 최 비서는 여러 차례 시주석과 접촉할 기회를 얻긴 했지만, 단독 면담은 결국 하지 못했다고 뉴스는 전함.

바. 대일본

- 北불교도연맹, 일본 내 문화재 반환 추진…조정기일 출석키로(8/31, 연합뉴스)
 - 30일 서울에 사무소를 둔 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대표 해문 스님)에 따르면 차금철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서기장은 평양 울리사지 석탑을 되찾기 위해 다음 달인 9월 17일 도쿄 간이재판소에서 열리는 조정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차 서기장은 8월 29일 방북한 문화재 제자리 찾기 관계자를 개성에서 만나 그간 남·북한 불교계의 공동 노력으로 북관대첩비, 조선왕조실록, 의궤, 어보 등의 문화재가 반환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계획을 설명했다고 전함.
 - 이어 문화재 제자리 찾기 측은 조불련이 일본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석탑반환 문제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북일 수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반환을 논의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뉴스는 덧붙였다.

사. 대러시아

- 베일 벗은 김정은의 ‘청봉악단’…“러시아 공연 대성황”(9/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공훈국가합창단이 청봉악단과 합동출연하는 초대공연이 8월 31일 저녁 러시아의 이름있는 역사 및 문화대상인 차이코프스키명칭음악당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보도함.
 - 통신은 “청봉악단 가수들은 여성중창 ‘로씨야처녀노래련곡’도 섬세하고 흥치나는 성악기교와 안삼블로 멋들어지게 형상하여 관람자들을 흥분으로 들끓게 하였다”고 분위기를 전함.
 - 이고리 모르굴로브 러시아 외무성 부상과 키릴 스펠레코프 원동발전성 국무비서 겸 부상,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 등 러시아 각계 인사들이 공연에 초대됐으며, 북한 측에서는 김형준 주 러시아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공연을 관람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러시아 학교에 ‘북러친선’ 과목 개설됐다(9/3, 자유아시아방송)
 -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주의 한 학교가 ‘북러친선’ 과목을 정식 도입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함.
 - 지난 2일 하바롭스크주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러 양국간 친선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이번 학기부터 하바롭스크시 제5학교에 ‘북러친선’(friendship) 과목이 개설됐으며,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양국의 문화와 전통, 역사 등을 배우고 차차 북한말도 익혀 나갈 예정이라고 방송은 전함.

아. 국제기구

- 리수용 북한 외무상, 내달 2일 유엔총회서 기조연설(9/2,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일 “북한이 이달 말 열리는 제70차 유엔 총회에 리수용 외무상을 북한 대표로 파견한다”며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고 보도함.
 - 유엔 사무국에 따르면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번 유엔 총회와 ‘2015년 이후 개발 의제 채택을 위한 유엔 정상 총회’에 참석할 북한 대표단으로 리수용 외무상 일행을 신청했다고 방송은 전함.
 - 방송은 오는 리수용 외무상이 25~27일로 예정된 ‘2015년 이후 개발 의제 채택을 위한 유엔 정상 총회’에 참석해 마지막 날인 27일 22번째로 단상에 올라 북한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보도함.

자. 기타 국가

- 시리아 수도에 ‘김일성 공원’ 건립(8/31, 사나통신)
 - 시리아 정부가 우방인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김일성 공원을 세웠다고 시리아 국영 사나 통신 등이 31일(현지시간) 보도함.
 - 31일(현지시간)에 파이살 미크다드 외무차관과 장명호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마스쿠스의 카파르 지역에 김일성의 이름을 딴 공원 개관식이 열렸다고 통신은 전함.
 - 미크다드 차관과 장 대사는 기념식 축사에서 미국과 서방,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양국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반미 동지’ 북한·쿠바, 우호관계 유지에 주력(9/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평양 천리마문화회관에서 북한과 쿠바의 수교 55주년을 기념하는 경축집회가 열렸다고 보도함.
 - 행사에는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 북한 주재 쿠바대사, 조선쿠바단결위원장인 김승두 교육위원장, 신흥철 외무성 부상, 서호원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전함.
 - 김승두 위원장은 “조선 인민은 앞으로도 쿠바 인민을 반제반미 투쟁의 전초선에 함께 서있는 친근한 전우로 여기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알바레스 대사는 “김일성 동지는 카리브해 위기 때 쿠바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며 “선대 수령이 마련해준 두 나라의 친선 관계는 김정은 동지에 의해 더욱 계승 발전되고 있다”고 화답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국제태권도대회 2017년 평양 개최…“한국 참가 희망”(9/4, 미국의소리)
 - 조지 비탈리 국제태권도연맹(ITF) 대변인은 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전화에서 지난달 26일 불가리아 플로브디브에서 열린 제25차 총회에서 평양 개최를 결정했다며 “남한 주도 세계태권도연맹(WTF)이 시범단을 파견하길 희망한다”고 밝힘.
 - 개최지로 북한과 함께 에스토니아, 인도, 에티오피아 등 4개국이 거론됐지만 이들이 막판에 개최 의사를 포기하면서 투표 없이 평양이 선정됐다고 대변인은 설명함.
 - 이로써 북한은 지난 1992년 이후 19년 만인 2011년 제17차 대회를 연 뒤 6년 만에 다시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방송은 설명함.

- ‘수교 55주년’ 북한 방문 쿠바대표단 “양국 친선관계 영원”(9/5,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쿠바의 수교 55주년을 기념해 4일 북한을 방문한 미겔 마리오 디아스 카넬 베르무데스 쿠바 국가이사회 제1부위원장이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는 영원하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베르무데스 제1부위원장은 4일 저녁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쿠바 대표단을 위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연 연회에 참석해 “쿠바와 조선 두 나라 사이의 불패의 친선관계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별한 관심 속에 공고 발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일본 체육대학대표단(단장 : 마쓰나미 겐시로 이사장), 8월 31일 국제친선전람관과 평양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참관(8.31, 중앙통신)
- 미국의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原爆투하 등에 대해 “핵전범국이며 세계적인 핵위협과 핵전파의 원흉”이라고 비난 및 최근년간 ‘미국의 핵정책(핵무기 개발 및 현대화 등)으로 세계는 핵전쟁의 위험이 더욱 짙어가고 있다’고 주장(9.1, 중앙통신)
- 미국이 의도적으로 알콜·마약중독 미군 병사들을 이라크 등 파병을 통해 “인권유린, 인간살육전을 벌였다”며 ‘인권유린 주범·왕초인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비난(9.1,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일본 간토 대지진(‘23.9.1) 당시 “일제의 재일조선인 폭동설 조작과 집단학살만행” 폭로 및 이는 “민족배타주의와 조선민족말살 정책의 산물”이라며 ‘일본의 철저한 반성과 청산’ 촉구(9.1, 중앙방송)
- 일본 체육대학 대표단, 9월 1일 귀국(9.1, 중앙통신·중앙방송)
- 韓美 합동군사연습들 진행 관련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근원’이라며 ‘미국이 남조선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면서 정세를 계속 긴장 격화시키는 한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에 끊임없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9.2,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은 조선인민에게 온갖 재난과 고통을 들씌우고 조선민족의 밝은 미래를 막아 나선 불행의 화근’이라며 ‘미국과는 오직 피의 결산만이 유일한 대응책’이라고 주장(9.3, 중앙통신·노동신문)
- 日 외무성의 ‘식민지 지배·침략’ 역사 설명 홈페이지 삭제 관련 ‘아베 담화를 따른 것으로서 과거범죄 역사를 전면부정 한 것’이라며 ‘일본은 군국주의 악몽에서 깨어나 과거범죄 역사를 인정하고 사죄하며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9.3,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직업총동맹대표단(단장 : 김동선 직총 부위원장), 9월 3일 베트남·리오스 방문 차 평양 출발(9.3,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국토환경보호성대표단(단장 :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 9월 3일 ‘제14차 세계산림대회’(남아프리카)에 참가 차 평양 출발(9.3, 중앙통신·중앙방송)
- ‘아베 담화(8.14)’ 등 현시기 일본의 “군국주의 망동은 재침을 부르짖으며 군국화로 질주해온 70년의 폭발”이라고 비난하며 “재침은 제2의 패망, 자멸의 길”이라고 경고 및 ‘과거청산’ 촉구(9.4, 중앙통신·노동신문)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총 부위원장)↔쿠바 ‘미겔 마리오 디아스 카넬 베르무데스(국가이사회 제1 부위원장)’ 회담, 9월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9.4,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민용항공총국 대표단(단장: 강기섭 총국장)·친선문화대표단(단장 : 김영식), 9월 4일 러시아에서 각각 귀환(9.4, 중앙통신)
-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 아사드), 9월 3일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北 정권 창건(9·9절) 67주년 축전(9.4,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본 조선유학생동맹결성 70주년 대표단, 만경대 방문 및 개선문·주체사상탑·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등 참관(9.4, 중앙통신·중앙방송)
- UFG 연습 등을 거론 ‘미국은 평화와 인권의 파괴자’라고 재차 주장하며 ‘허위와 모략, 기만으로 국제사회를 속이고 군사적 간섭과 전쟁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것이 상투적 수법’이라고 비난 및

- 반미투쟁 선동(9.5,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영남, 9월 5일 쿠바 국가대표단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9.5, 중앙통신)
- 北-러 공동사진 및 미술전람회 개막식, 9월 1일 러시아 하바롭스크시에서 진행(9.5, 중앙방송)
- 재일본조선인축하단(단장: 홍인홍 총련중앙감사위원장), 9월 5일 '北정권수립일(9.9)' 즈음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父子 동상 참배(9.5,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태권도선수단(단장: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장), 9월 6일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불가리아) 참가 후 귀환(9.6,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법률가위원회 고소장(9.6)】 주한미군 주둔('45.9.8) 70주년을 즈음하여 '미국은 한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장본인'이라며 '미국의 남조선 강점과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 및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9.6, 중앙통신)
- 모란봉 제1중학교 학생들,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러시아 원동지역에서 공연(9.6, 중앙통신)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평양 옥수수가공공장 극찬...“멋쟁이공장”(9/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 완공한 평양강냉이가공공장(옥수수)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은 모든 생산공정이 현대적이며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흠잡을 데가 없는 멋쟁이 공장”이라고 치하하였다고 전함.
 - 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은 특히 “우리의 힘과 기술로 현대적인 설비들을 창안·제작한 것이 마음에 든다”면서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은 식료공업의 표준화된 본보기 공장”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북한 김정은, 중국 열병식 하는 날 ‘군수공장’ 시찰(9/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의주측정계기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번에 공장에서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측정계기를 연구개발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뻐하고, 큰일을 해냈다고, 개발자들을 직접 만나 보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새로 만든 측정계기가 세계적 수준”이라면서 “최첨단 측정계기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연구개발한 것은 경이적인 성과”라며 과학자와 연구자들을 치하했으며, 나아가 “신의주측정계기공장에서 당 중앙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들 중의 하나를 풀었다고, 당 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훌륭한 선물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고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숙청된 마원춘 ‘김정은 복귀 지시’에 쇼크사(9/4, UPI통신)
 -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 신청사의 공사 책임자였으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마원춘(59) 전 국방위 설계국장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UPI통신이 3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을 인용해 보도함.
 - 방송은 중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숙청, 양강도 지역 농장으로 좌천시킨 마원춘의 복귀를 지시했으나 그가 복귀 지시에 놀란 나머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전함.
 - 이어 “마원춘이 김정은으로부터 책임을 다시 맡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큰 충격을 받고 쓰러져 숨졌다”고 전하면서 사망 날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그가 숨졌다는 소문이 간부들 사이에 돌고 있다고 덧붙임.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북한, 서해발사장 설비 계속 확충(9/4, 38노스)
 -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발사장의 시설들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고 38노스가 3일(현지시간) 밝힘.
 - 38노스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1일 각각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동식 구조물이 발사대와 발사준비용 건물 사이를 오가고 있음이 나타났다고 지적함.

- 이어 분석 담당 연구원들은 동창리 발사장에서 나타나는 활동이 전반적으로 많지 않고, 발사시설 구내로 반입되는 로켓연료의 급격한 증가처럼 발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활동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함.
- “북한, 원산에 미사일 발사 참관용 부두 건설”(9/6, 자유아시아방송)
 -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출연해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부근에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는 데 이용하는 부두가 새로 건설됐다”고 밝힘.
 - 지난 6월 8일 촬영된 이 사진에는 부두에 닿기 위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트 두 대가 정박해 있으며, 멜빈 연구원은 김 제1위원장은 원산에 있는 별장에서 보트를 타고 이곳으로 건너가 지난 6월 14일 함선 공격용 신형 함대함 미사일 발사와 지난해 8월 전술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지켜본 것으로 분석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한설야 소설 ‘승냥이’ 연극화…‘반미·반종교’ 고취(8/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평양의 국립연극극장에서 최근 연극 승냥이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함.
 - 통신은 “해방 전 선교사, 의사의 탈을 쓰고 조선에 기여들어 침략의 척후병 노릇을 한 자들이 저지른 만행을 소재로 한 연극은 미제의 야수적 본성을 날낱이 발가놓고 있다”고 강조함.
 - 이어 연극을 본 주민들이 “미국놈들은 파렴치하고 악랄한 승냥이이며 미제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 안고 있다”고 전함.

- ‘일심단결은 김정일이 물려준 가장 귀중한 혁명유산이며 모든 승리의 원천’이라며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일심단결의 위력을 총폭발시키며 10월의 경축광장을 향해 총돌격해야 한다’고 강조(8.31,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한” 류경건설설계연구소 일꾼-근로자 등에게 ‘감사’ 전달(9.1, 중앙방송)
- 박봉주(내각총리), 과학기술전당 건설정형 현지요해(9.3, 중앙통신)

- 北 교육부문, 원격교육체계 완비 선전(9.3, 중앙통신)
- 노동당출판사, '당 창건'(10.10) 70주년 경축 '선전화' 창작(9.3, 중앙통신)
- 제16차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9.4-11) 개막식, 9월 4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김형훈(보건성 부상/개막연설)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9.4, 중앙방송)
- 김정일의 미루벌 현지지도('05.9.5) 10주년 기념보고회, 9월 4일 곡산군 평암협동농장에서 박대덕(황해북도 黨 책임비서/기념보고)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9.5, 중앙방송)
- 北, '만수대분수화초공원'이 평양시 중심부에 완공되었다고 보도(9.5, 중앙통신)
-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 9월 6일 김영남(제막사)·박봉주·김기남 등이 참가한 가운데 남포시에서 진행(9.6,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현지지시' 관철 평양 강냉이가공공장 종업원들의 궤기모임, 9월 5일 김수길(평양시 당위 책임비서)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9.6, 중앙방송)
- 조선민속박물관, 새로 개관(2012.9.7) 후 수 십만 명의 근로자들·청소년학생들·외국인들 참관(9.6, 중앙통신)
- 北,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에 주력(9.6, 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북한, 인삼 효과내는 개성 모래찜질 명소 홍보(8/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개성에서 남동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삼담 모래찜질'을 할 수 있는 '마미천가'라는 찜질터가 유명하다고 소개함으로써 북한이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보도함.
 - 럽정철 개성시인민위원회 처장은 "마미천가의 모래에는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칼슘, 모래터 사이로 흐르는 물에는 탄산염과 마그네슘 등 인체에 좋은 성분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고려항공 여승무원들 월간지 표지모델로 등장(8/31, 연합뉴스)
 - 3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의 대외용 월간 화보 '조선' 9월호에는 다섯명의 여자 승무원들이 표지 모델로 등장했다고 보도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2012년 7월 초 평양 순안국제공항을 시찰하면서 “안내원(승무원)의 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잘 만들어주며 여객들에게 봉사하는 식사(기내식)의 질을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과거와 달리 세련된 모습의 북한 승무원들이 눈에 띄는 것은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 당국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항공 서비스 질 향상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프랑스 기업 투자 시멘트회사 선전…“외자유치 전략”(9/1, 내나라, 연합뉴스)
 - 북한이 ‘내나라’에 프랑스 시멘트업체 라파즈가 자본을 투자한 평양상원시멘트 합영회사를 홍보하는 기사를 올리면서 북한과 외국 기업의 협력이 원만히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윤재혁 평양상원시멘트합영회사 사장은 “회사는 쌍방의 노력으로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촉진해 시멘트의 질을 높이고 생산을 늘려 나라의 중요 대상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고 매체는 전함.

다. 경제 상황

- 북한, 영국 NGO에 수해복구 지원 요청…남한엔 요청 없어(9/2,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 비정부기구(NGO)인 쉘터박스의 국장 앤드루 애번스는 “북한 당국이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을 통해 수해복구 지원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함.
 - 지난달 22~23일 제15호 태풍 ‘고니’가 북한 나선시를 강타하면서 주민 40여명이 숨지고 1만 1천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주택 1천여채가 파손된 것과 관련하여 애번스 국장은 “대북 지원을 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현재 북한 대외경제성과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제사회, 앞다퉀 북한 홍수 피해 지원 나서(9/3,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적십자사는 홍수 피해가 심각한 북한 나선시 1천 300여 가구에 대한 재난구호긴급기금(DREF) 지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함.
 - 또한 국제적십자사는 북한 조선적십자회 등에 기술적 지원을 하는 한편 추가 피해에 대비해 구호물품을 나선 인근과 평양의 창고에 마련해두었다고 전함.

- 국제적십자사 외에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이 앞다퉈 북한 홍수 피해 지원에 나섰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북한, 홍수 피해 나선시 복구 작업에 구슬땀(9/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물난리를 겪은 나선시 주민들에게 물고기를 비롯한 식자재와 피해 복구에 필요한 물자를 보냈다”고 보도함.
 - 나선시는 ‘큰물 피해 복구 계획’을 세워 물에 잠긴 도로와 농경지를 복구하고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의약품을 나눠주고 있으며, 비 피해를 입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도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차원의 긴급 비상회의를 열어 나선시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지원물자를 보내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함.
 - 방송은 폭우로 파괴됐던 후창역과 선봉역 구간의 철길이 복구돼 지난 2일 오후부터 열차가 운행하기 시작했고, 수백m에 달하는 옹벽 복구 작업도 마무리됐다고 전함.
- 유엔, 북한 수해 실시단 파견…국제사회 지원도 잇따라(9/4,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유엔 기구들이 3일 북한 당국에 의해 초청돼 나선 수해 지역의 공동실사에 참가했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함.
 - 공동실사단에는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기구들과 국제적십자사, 국제 비정부기구(NGO) 등이 포함됐다고 방송은 전함.
 - 이어 유엔 측은 “수해 지역 북한 주민 대부분이 현재 공공시설이나 임시시설에 대피해 머물고 있으며, 음식과 식수뿐만 아니라 위생시설에도 접근할 수 없다”고 현지 사정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라. 대외 경제 관계

- 남북 경제장관, 동방경제포럼 참석…장관급 회동 주목(8/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리룡남 대외경제상이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31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함.
 - 리룡남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가 주도하는 ‘신(新) 프로젝트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 그는 또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러시아 극동개발장관과 회동하는데 이어 한반도 3국 협력 논의를 위해 남한 및 러시아 관계자들과도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 포럼에는 윤상직 장관도 참석하기 때문에 남북 경제담당 장관들의 회동이 이뤄진다면 남북러 경제협력 사업도 논의할 것으로 보임.
- 북한-러시아 철도 운송량 9.5배 ↑(9/1, 자유아시아방송)
 - 올해 국경 철도를 통한 북한과 러시아의 물류 운송량이 작년에 비해 9배 이상 늘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러시아 철도공사를 인용해 보도함.
 - 러시아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1~7월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을 잇는 국경 철도를 활용한 물류 운송량은 88만 7천500t에 달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5배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함.
- 북한 24개 기업 중국 동북아 국제박람회 참가(9/2,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24개 기업들이 1일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 국제회의센터에서 개막한 제10회 동북아 국제박람회에 참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함.
 - 이어 방송은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북한 기업은 천연약제와 치료용 치약 등 건강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거나 무역회사들이라고 보도함.
 - 북한 기업이 출품한 주요 제품은 천연약물로 만든 지방간 특효제와 구강질환을 치료하는 천연치약, 인삼 가공품, 우황청심환 등이며, 북한 전시관을 둘러본 중국 현지 언론은 이전보다 참가 기업과 제품 수준이 높아졌고 해외 합영·합작회사가 늘어나는가 하면 제품량도 풍성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짐.
- 北, 이란과 석유·농수산 분야 협력 기대(9/2, 파르스통신)
 - 북한이 서방의 경제 제재 해제 가능성이 커진 이란과 석유, 농수산물 분야 협력을 기대했다고 이란 파르스통신이 지난달 8월 30일(현지시간) 보도함.
 - 통신은 강삼현 주이란 북한대사가 2일 파르스통신에 “북한은 적들의 제재로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려고 한다”며 “이란과 원유, 농축산물, 수산물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WFP, 8월 대북 식량지원 22개월만에 최대 기록(9/3, 미국의소리)
 - 다미안 킨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지역 사무소 대변인은 3일 미국의소

리(VOA) 방송에 “지난 8월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73만 3천여 명에게 3천785t의 영양강화식품과 콩, 식용유 등을 제공했다”고 밝히며, WFP의 대북 식량 지원이 최근 2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함.

- 이 같은 규모는 2013년 11월 4천200t을 분배한 이후 가장 많은 양이며, 직전인 7월에는 61만 6천여 명에게 3천231t을 분배해 지원 대상과 규모 모두 20% 가까이 늘었다고 전함.
- 하지만 이 같은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매달 180만 여명의 북한 주민에게 1만t 식량을 제공한다는 WFP의 당초 계획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덧붙임.

■ “북한-중국 경협 가속화…4년 새 교역액 2배로 급증”(9/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최근 북중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하여 북중 간 교역은 2010~2014년 연평균 18.6%씩 증가함으로써 북중 간 경제협력이 최근 몇년 새 급속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함.
- 북중 간 교역 총액은 2010년 34억 7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68억 6천만 달러로 2배 수준으로 급증했고, 북한의 전체 교역 중 대(對) 중국 비중 역시 같은 기간 57.0%에서 69.0%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중국의 대 북한 직접투자 잔액은 2003년 1천만 달러에서 2013년 5억9천만 달러로 급증했다고 설명함.

■ 북한 교육기금에 국제 사회 후원 이어져(9/6, 연합뉴스)

- 6일 북한 조선교육후원기금 홈페이지(www.koredufund.org.kp)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넉 달 동안 영국, 캐나다, 중국 단체와 해외 동포가 조선교육후원기금에 각종 자재와 지원금, 식료품 등을 후원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지난 3월과 7월에는 ‘굳프렌즈인터내셔널단체’와 ‘우리아이인터내셔널단체’가 남포시와 황해남북도의 애육원과 초중등학교에 영양 식품 18t을 기증했으며, 3월에는 ‘선양하나재단’이 원산학원에 어린이 신발 2천500켤레, 4월에는 ‘신세기무역회사’가 원산 중등학교에 자동차 운전 모의 실습 설비를 각각 전달함.
- 이어 5월에는 ‘마라나타기금’이 목공 실습 설비를 기증했고, ‘스웨리예코리아마음재단’과 ‘베텔비전단체’가 황해북도 신평군 생양고급중학교 3호 교사의 건설 자재 3만 5천 달러 상당을 지원했으며, 6월에는 ‘영국만나미선유립단체’가 대동강평화빵우유공장에 화물차 1대를 전달했다고 뉴스는 전함.

- 개인 후원도 이어져 5월에는 재중 동포가 황주중등학교와 평양미림학원에 영양가루 5t, 6월에는 캐나다 동포가 강냉이 국수 42t을 지원했다고 뉴스는 덧붙임.

- 육해운성, 9월 4일 '자체 기술로 제작한 첫 40t 짐함기중기(중전 동급 짐함기중기 대비 시간당 화물처리 1.2배)' 남포항에 설치 및 "성과적 시운전" 진행(9.4,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미제 영화보면 노동교화소행" 북한 재판 몰카영상 공개(9/4, 텔레그래프)
 - 북한에서 미국 영화를 시청하고 복제한 주민들이 공개재판을 받는 동영상이 영국 텔레그래프를 통해 4일 공개됨.
 - 텔레그래프는 지난 2013년 9월 북한의 공개재판 현장을 몰래 촬영한 12분 분량의 동영상을 4일(현지시간) 독점 공개하였으며,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고는 각각 27세, 30세의 남성 두 명으로 미국 영화를 본 뒤 이를 복제한 혐의로 기소돼 9개월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음.
 - 이 재판은 군중 100여명 앞에서 북한 당국의 관계자가 차량에 설치한 확성기로 죄목을 읊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판사는 한 피고인에 대해 "자본주의의 썩은

사상에 빠진 자”라고 비난했으며 납과된 요원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하며, 이들이 모두 청진의 화력발전소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마. 사회 동향

- 김정은, ‘백두혈통 부각’ 김정숙사범대 도서관 단장(9/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양강도) 혜산시 련봉산기슭에 자리잡은 김정숙사범대학에 도서관이 새로 꾸려졌다”고 5일 보도함.
 - 신문은 “우리 식으로 형성된 도서관의 컴퓨터망은 교육과학사업과 학과학습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고 있다”고 강조함.
 - 신문은 또 “원격교육체계가 실현됨으로써 학생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대학의 강의를 실시간 받으며 필요한 학과목들에 대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임.

- 전국 대학생 정보과학기술 성과전시회 폐막식, 8월 31일 전용남(청맹위원장/폐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8.31, 중앙통신)
- 北 축구대표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H조 2차 예선 對바레인팀과 1차 경기(9.3, 바레인) 1:0 승리(9.4,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 국무부 6자회담 특사 시드니 사일러 특사 물러날 듯(8/31,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인 시드니 사일러가 조만간 물러날 것으로 알려짐. 사일러 특사는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보좌해 대북 관련 업무를 맡아 왔으며, 한국에서 오래 살아 한국말에 유창하고 북한도 여러 차례 비밀리에 다녀온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통함.
 - 2011년 5월부터 3년 넘게 백악관에서 한반도담당 보좌관을 지내다가 지난해 9월 6자회담 특사에 기용된 사일러 특사는 다음 자리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소속 부서인 국가정보국(DNI)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 사일러 특사의 후임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나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韓中 6자수석, 정상회담 앞두고 북핵문제 등 조율(9/1, 연합뉴스)
 -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베이징을 방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동한다고 밝힘. 양국 6자회담 수석대표는 2일 개최되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주요의제로 다뤄질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강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 핵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이번 방중에서 북한 측과 접촉할 계획은 없고 박 대통령이 방중 기간 북측 대표와의 접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즉답을 피함.
 - 황 본부장은 이밖에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인 시드니 사일러가 후임이 지정되지 않은 채 물러난 데 대해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임.

- 美 6자회담 특사 한국과장이 겸임...“대북정책 변화 아니다”(9/2,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가 물러나고 마크 램버트 한국과장이 당분간 그 자리를 겸임한다고 밝혔다.
 - 국무부 대변인실은 “사일러 특사는 파견된 지 거의 1년이 다 돼 원 부서(국가안보국)로 복귀했다.”면서 “이는 일상적인 순환인사의 하나로 대북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최근 임명된 램버트 한국과장은 국무부 내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1990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이래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 근무했으며 직전에는 주(駐)베트남 미국 대사관 정무참사관을 지냈다.
- 美, 北 2개 무역회사 제재 대상으로 지정(9/4, 연합뉴스)
 - 미국이 무기 수출에 관여한 북한 무역회사 두 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미국 국무부는 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위반 혐의로 북한의 제2연합무역회사와 폴레스타 무역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제2연합무역회사는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 기관으로, 주로 무기 수출과 부품 구입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폴레스타 무역회사는 북한이 중국에 설립한 무역회사임.
 - 그러나 미 국무부는 그러나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새로운 제재가 2년간 유효할 것이라며 제재 대상들이 미국 회사나 정부 기관과 계약, 지원, 거래 등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 미·북 관계

- 美 전문가, “북한 잠수함 전력 개선 소기 성과”(9/3,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을 통해 긴장을 높이는 과정에서 잠수함을 동원한 점은 북한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잠수함 전력 개선에 성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진단이 나왔다.
 -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스 연구원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잠수함 전력 증강을 위해 행했던 “그동안의 훈련과 유지 보수 노력이 실제로 분명한 성과를 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함.

- 이 일을 “남측에 보내는 정치적 신호”라고 해석한 버뮤데스 연구원은 북한의 잠수함 이동이 “유사시에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잠수함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북한 정보당국에 매우 좋은 개념을 제공했다.”는 의견을 보였음.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연구원도 북한의 최근 도발이 철저하게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뤄졌다고 풀이함.

■ 美, 北에 미사일개발기술 판매 혐의로 러시아 방산업체 제재(9/3, 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 시리아 등에 대량파괴무기(WMD)와 미사일 개발 기술과 물질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로 국영 무기 수출 통제업체 로소보론엑스포트(Rosoboronexport) 등 5개 러시아 방산업체에 대해 2일(현지시간) 제재를 결정함.
- 러시아, 중국,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등 23개 외국 회사를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 리스트에 수록하고 관보를 통해 이 사실을 발표했다고 전함. 특히 로소보론엑스포트 등 5개 러시아 회사는 북한, 이란, 시리아 등 3개국과 WMD 개발과 미사일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물질, 용역 등을 불법으로 거래한 ‘신뢰할만한(credible)’ 증거에 따라 제재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윌리엄 스티븐슨 러시아 주재 미 대사관 대변인이 설명함.
- 이번 조치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결정은 국익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특히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 주민들의 자유로운 결정 (러시아의 병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함.

다. 중·북 관계

■ 주북 中대사 北·中혈맹 강조…“김일성은 동지이자 친구”(8/31, 연합뉴스)

- 리진권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내달 3일 중국 70주년 전승절을 앞두고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을 ‘동지’이자 친밀한 친구로 규정하며 북중 혈맹관계를 강조함.
- 리 대사는 북한 월간지 ‘금일의 조선’ 9월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잔혹한 일본 식민통치에 저항하기 위해 조선(북한)의 많은 지사가 중국으로 와 항일투쟁을 전개했다”며 “특히 중국인민의 친밀한 친구인 김일성 동지는 동북항일연군과 함께 동북지방에서 용감하게 일본에 저항했다.”고 소개함.

- 리 대사는 “항일전쟁과 항미원조 전쟁 중에 피로써 맺은 우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소중한 자산으로 세대를 넘어 전승하고 부단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한국전쟁도 거론했으며, 새로운 시기와 형세 하에서 ‘전통계승·미래지향·선린우호·협조강화의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며 북중 관계의 기본 원칙인 16자 방침도 언급함.
 - 리 대사의 기고문에는 중국의 공식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의 남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기존 입장과 크게 바뀌지 않았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 中 텐안먼 망루서 구석으로 밀려난 북한 최룡해 비서(9/3, 연합뉴스)
 - 중국의 열병식 현장인 베이징 텐안먼(天安門) 성루에서 61년의 시차를 두고 급변한 북한 사절단 대표의 위치가 주목받고 있음.
 - 1954년 중국의 6차 열병식에서 김일성 주석은 마오쩌둥 당시 주석의 바로 오른쪽에 위치했었으나 3일 열병식에서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구석으로 밀려났음.
 - 하지만, 이번 열병식 현장에서 최룡해 비서는 시 주석의 오른쪽 끝 편에 자리했으며, 이는 달라진 북중관계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분석임.
 - 中 열병식, ‘구석 관람’ 최룡해 비서 벌써 귀국…사실상 ‘빈손’(9/3, 연합뉴스)
 - 수년째 꼬꼬 얼어붙어 있는 북중 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지도 모른다는 관측 속에 지난 2일 방중했던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짐.
 - 베이징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께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의 항일전쟁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던 최 비서는 오후 평양으로 돌아감.
 - 전날 오후 선양(瀋陽)을 경유해 베이징에 도착했던 최 비서는 여러 차례 시 주석과 접촉할 기회를 얻긴 했지만, 단독 면담은 결국 하지 못함. 이에 대해 최 비서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오지 않았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日, 주중대사관에 北담당 공사 신설 방침(9/3,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베이징의 주중대사관에 북한과 일본간 문제를 담당하는 공사(·대사 바로 아래 서열) 자리를 신설할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지가 신문(닛케이)이 보도함.

-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닷케이는 소개하였고, 첫 북한 담당 주중 공사로는 내각관방 납치문제 대책실에서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를 내정함.
- 일본 정부 입장에서 주중 대사관은 미수교국인 북한과의 연락 창구로, 이제까지는 북한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할 필요가 있을 때 외무성 북동아과장 등이 출장을 감.
- 북일관계를 담당하는 고위 외교관 자리가 주중대사관에 새롭게 생기면 북한과의 보다 신속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일본 측은 기대하고 있다고 전해짐.

마. 러·북 관계

- 러시아 학교에 ‘北·러 친선’ 과목 개설됐다(9/3, 연합뉴스)
 -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주의 한 학교가 ‘북러친선’ 과목을 정식 도입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함. 지난 2일 하바롭스크주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러 양국간 친선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이번 학기부터 하바롭스크시 제5학교에 ‘북러친선(friendship)’ 과목이 개설되었음.
 -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양국의 문화와 전통, 역사 등을 배우고 차차 북한말도 익혀 나갈 예정임. 이달 시작한 수업에는 학생 20명이 등록했고, 지난 7월 북한 송도원 야영장을 방문했던 러시아 학생들도 수업을 듣고 있음.
 -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올해를 ‘북러 친선의 해’로 정하고 폭넓은 분야의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지난달 31일에는 북한 공훈국가합창단과 청봉악단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기념 공연을 펼치기도 함.

바. 기타

- WFP, 8월 대북 식량지원 22개월만에 최대 기록(9/3, 연합뉴스)
 - 지난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 지원이 최근 22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으며, 다미안 킨 WFP 아시아지역 사무소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지난 8월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73만3천여 명에게 3천785t의 영양 강화식품과 콩, 식용유 등을 제공했다.”고 밝힘.

- 이 같은 규모는 2013년 11월 4천200t을 분배한 이후 가장 많은 양임. 직전인 7월에는 61만6천여 명에게 3천231t을 분배해 지원 대상과 규모 모두 20% 가까이 늘었음.
- 하지만 이 같은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매달 180만여 명의 북한 주민에게 1만 식량을 제공한다는 WFP의 당초 계획에는 못 미치는 상황임. WFP가 대북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목표한 모금 금액은 약 1억6천만 달러이지만 현재 모금액은 절반 수준인 약 8천600만 달러로 전해짐.

■ 유엔, 北 수해 실시단 파견…국제사회 지원도 잇따라(9/4, 연합뉴스)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유엔 기구들이 3일 북한 당국에 의해 초청돼 나선 수해 지역의 공동실사에 참가했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보도함. 유엔 기구들이 북한 당국의 초청으로 수해를 본 나선 지역에 실사단을 보냈으며, 유럽연합(EU)은 17만 달러(약 2억 원)를 내놓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홍수 피해 지원도 잇따르고 있음.
- 북한 당국은 지원 요청을 하면서 “나선 지역에서 홍수로 1만 1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40명이 사망했다.”고 밝힘. 유엔 측은 “수해 지역 북한 주민 대부분이 현재 공공시설이나 임시시설에 대피해 머물고 있으며, 음식과 식수뿐만 아니라 위생시설에도 접근할 수 없다.”고 현지 사정을 전함.
- 한편, 북한 조선중앙TV는 제15호 태풍 ‘고니’로 수해를 입은 특별경제구역 나선시의 복구 작업 모습을 31일 방송함. 나선시는 이번 수해로 인명 피해 40여 명, 주택 1천70여 동과 철길 51개 파손, 농경지 125정보(1정보 약 9천900여㎡)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짐.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존 케리 장관, “한국은 최상의 글로벌 파트너”(9/1, 연합뉴스)

- 케리 장관은 이날 미국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북극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에 앞서 취재진에 “한국은 모든 안보와 지역이슈를 넘어 그 이상의 이슈를 다루는 데서 최상의 파트너”라고 밝힘.
- 케리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한국이 기후 변화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끌어내려는 미국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됨.

- 韓·美, “중국 對한반도 건설적 역할 공감…긴밀한 전략대화”(9/1,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북극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과 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 이와 관련해 케리 장관은 윤 장관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달 3일 전승절 기념행사와 열병식 참관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참석자들은 설명함.
 - 두 장관은 특히 다음달 2일 한·중 정상회담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월 하순 방미, 박 대통령의 10월 중순 방미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긴밀한 전략적 대화를 계속 해나가기로 함.
 - 두 장관은 또한 이 같은 전략적 대화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차원의 ‘새로운 공동인식’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해나가기로 함.

- 카터 장관, “한반도, 언제든 전쟁날 수 있는 유일한 곳”(9/2,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국방부에서 화상으로 가진 ‘전 세계 미군 병사들과의 대화’에서 “한반도는 아마도 ‘언제든 쉽게(at the snap of finger)’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구촌의 유일한 곳”이라며 미군 장병의 철저한 준비태세를 당부함.
 - 카터 장관은 판문점에서 북무 중인 소머스 일병과의 대화에서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을 아주 잘 안다. 바로 북한과 마주한 비무장지대(DMZ)다.”면서 “한반도는 부싯깃통(tinderbox)이나 다름없는 곳 중 하나로, 우리는 언제든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북한의 어떤 도발도 격퇴될 것이고, 우리와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북한이 알게 해야 한다.”면서 “슬프게도 이것(대치상황)이 먼 과거의 유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현실이다. 조너선 일병 같은 군인이 매 순간, 매일 아침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라고 말함.

- 美 국무부, “좋은 韓·中 관계가 美 국익에 부합”(9/3,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는 역내 국가들의 좋은 관계가 평화와 안정을 촉진한다고 믿는다.”고 밝힘.

- 카티나 애덤스 동아태담당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이는 양국의 이해는 물론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함.
 - 이어 “북한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들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한다는,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화에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그와 같은 공감대를 이뤄내도록 역내 동맹과 우방들과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美, ‘中 열병식’에 비판적…“朴대통령 참석은 이해”(9/4,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정부의 열병식에 참석한 것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그러나 미·일 관계를 ‘화해의 모델’이라고 거듭 천명하고 2차 세계대전 관련국들에 ‘화해적 접근태도’를 주문해, 종전 70주년을 맞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려는 중국의 행보와는 분명한 차별성을 보였음.
 - 애나 리치-앨런 국무부 동아태담당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열병식 개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70년 전 많은 국가가 치른 희생을 기리고 존중한다.”며 “우리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종전 70주년을 맞아 화해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힘. 또한,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국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 한편,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박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유일하게 열병식에 참석한 정상”이라며 “박 대통령의 보다 큰 임무는 북한과의 긴장을 낮추는 데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려는데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함.
- 외교차관, “韓美동맹 허약하지 않다”…‘中경사론’ 반박(9/6, 연합뉴스)
-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계기로 더욱 긴밀해진 한중관계로 인해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조 차관은 이날 어느 중편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중관계가 가까워진다고 한미동맹이 훼손되거나 약화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른바 우리 정부에 대한 ‘중국 경사론’을 적극 반박함.
 - 그는 “한미동맹은 그렇게 허약한 동맹이 아니다.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십은 파트너십이다. 파트너십이 동맹을 대체할 수 없다.”면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하나가 좋아진다고 다른 쪽이 나빠지는 관계가 아니다.”고 강조함.

나. 한·중 관계

- 中항일기념관, 臨政·朴대통령 등 韓 강조...김일성 위원장 등 北 축소(8/31, 연합뉴스)
 - 중국이 내달 3일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항일전쟁 기념관에 우리 정부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관련 자료를 보강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행사 사진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함으로써 한중간 역사 공조와 연대감을 부쩍 강조하고 있음.
 - 기념관은 또 윤봉길 의사의 사진과 상하이 의거 내용을 소개하는가 하면 임시정부 주석인 김구 선생과 안춘생·이시흥 등 광복군 주역들의 사진과 이름도 소개했으며, 임시정부가 8차례 옮겨 다녔던 역사도 연표 형태로 게시해 놓았음.
 - 그동안 국민당의 지원 속에 활동해 온 임정의 활동을 중국 공산당 측은 크게 부각시키지는 않는 경향이 있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들어 중국 당국은 항일전쟁 승리를 강조하면서 임정 청사와 광복군 유적들을 복원하는 등 한국 측을 향해 ‘우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반면, 중국 측은 김일성의 사진은 게재했지만 동북항일연군에 참가한 조선인들 이라고 소개했을 뿐 구체적으로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음.

- 中 언론, 朴대통령 방중 “외교적 지혜 발휘” 극찬(9/1, 연합뉴스)
 - 중국 법제일보는 박 대통령의 방중은 전략적 선택이며 한국외교의 지혜로운 결단이라며, 한국이 외교적 관례를 깨고 2개월 전에 방미 소식을 전해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함과 더불어,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의 포격도발로 인한 위기를 넘김으로써 열병식 참석을 위한 모든 장애를 해소했다고 밝혔음.
 - 신문은 “나무가 가만히 있으려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성사된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박 대통령의 방중이 한중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함.
 - 중국의 대형 포털사이트 신라망은 박 대통령이 128개 기업 156명으로 구성된 최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인솔하고 중국을 방문하며, 방중기간 한중 기업포럼에 이어 보건의료, 문화, 환경, 금융 등에서 한중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또 박 대통령이 지난해 체결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발효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FTA 발효 이후 첫 1년간 양국간 무역이 27억 달러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신라망이 보도함.

- **차대통령 “中 건설적 역할”…시진핑 주석 “역대 최상 관계”(9/2, 연합뉴스)**
 - 중국의 ‘항일(抗日)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 행사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일 최근 북한의 도발과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양국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함.
 - 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 사태는 언제라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보여주었고,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여준 단면이기도 하였다.”고 말하며, “한중 양국 간에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의 통일이 역내 평화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함.
 - 시 주석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날 박 대통령과 저의 협력으로 현재 한중관계는 역대 최상의 우호 관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으며, 박 대통령도 “지난 세기 양국이 함께 겪은 환난지교의 역사가 오늘날 양국 우의의 소중한 토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양국이 직면한 여러 도전을 해결하는 데도 잘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시진핑 주석, “韓·中 정치신뢰와 경제협력이 함께 전진”(9/2, 연합뉴스)**
 - 시진핑 주석은 “한중 관계는 현재 정치적 상호신뢰, 경제·무역협력, 인적 교류가 함께 전진하는 기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시 주석은 “저는 한국 측과 함께 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우리가 정한 방향으로 공동 발전의 길을 실현하고, 지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아시아의 진흥을 위해 함께하고,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네 개의 동반자’ 목표를 향해 뻗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함.
 - 이어 시 주석은 “현재 저와 박 대통령님의 상호 방문을 통해 일련의 중요한 공통인식을 달성했으며, 현재 전면적으로 (공통인식을) 이행해 나가고 있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며 “양국 간 고위층 교류가 빈번하고 한중 자유무역 협정(FTA)을 정식으로 체결했으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틀 내에서의 협력도 새로운 진전을 거두었다.”고 평가함.
 -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 세계의 평화를 촉진하는 평화적인 역량”이라며 “역사적으로 한중 양국 국민은 식민침략에 항쟁하고 민족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단결하고 서로를 도와 왔다.”고 평가함.

- 韓·中 정상,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9/2, 연합뉴스)
 - 한중 양국 정상은 이날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 한중일 3국 협력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및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내용의 회담결과를 청와대가 전함.
 - 여기에는 북한이 향후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 등의 추가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됨.
 - 또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일 3국 협력방안과 관련, 올해 10월말이나 11월초를 포함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함.

- 韓·中, FTA 조기발효·2천억원 문화 벤처펀드 조성키로(9/2, 연합뉴스)
 -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발효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양국 문화 공동시장 조성 논의와 함께 국가 공동 벤처펀드로는 역대 최대인 2천억 원 규모의 ‘문화 콘텐츠 개발’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우선 양국 정부가 FTA의 조기 발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과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해소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 민간 차원의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것 등에 합의했으며, 양국을 하나의 문화시장으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할 것을 논의함
 -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난해 ‘드레스덴 구상’에서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동북아개발은행이 북한 외에도 중국의 동북 3성과 러시아 연해주 등 동북아 개발에 특화함으로써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할 것임을 강조함.
 - 또한 ▲AIIB 출범 과정서 양국간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연계 등도 논의하는 한편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보건의료와 로봇, 차세대통신, 전자부품소재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로 협력을 다각화하는 경제성과도 창출됐다고 청와대가 전함.

- **朴대통령 위치, 中 전승절 기념행사서 5번 변경(9/3, 연합뉴스)**
 - 중국의 3일 '항일(抗日) 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위치가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5번 바뀌어(시진핑 우측→평리위안 좌측→시진핑 좌측→시진핑 우측 두번째→평리위안 좌측) 눈길을 끌었음.
 -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서 박 대통령의 위치가 계속 바뀐 것은 중국이 박 대통령에게 각별한 예우를 하면서도 전통적 우방국인 러시아와의 관계도 같이 고려한 끝에 나온 조치로 분석됨.
 - 텐안먼 성루에는 시 주석 바로 옆에 푸틴 대통령이 섰지만 성루로 이동하거나 단체 사진촬영을 할 때 박 대통령이 시 주석이나 평 여사 바로 옆에 자리하도록 해 나름대로 배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제2차 韓·中 FTA 무역촉진단 선양·장춘서 무역상담회(9/3, 연합뉴스)**
 -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국내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2개 무역업체로 구성된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촉진단'을 선양과 장춘에 파견해 무역상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음.
 - 무역촉진단은 장춘에서 열린 국제 종합박람회인 '중국 동북아 박람회'와 '한·중·일 기업인 교류 포럼'을 참관하고 무역협회가 개최한 '한·중 FTA 활용전략 및 동북 지역 시장환경 설명회'에도 참가함.
 - 최근 중국의 내수 확대 정책과 소비 증대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커지고 한·중 FTA 서명과 대규모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으로 신규 사업 기회가 확대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음.

- **韓·中 무역 비관세장벽 해소 협력 MOU(9/3,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문재도 2차관과 중국 순다웨이 국가질량감독검험 검역총국 부국장(차관급)이 베이징에서 '한·중 품질검사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음.
 - 협약에 따라 양국은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 협력의 틀을 마련하고 품질감독검사검역 관련 법률, 수출입 상품과 관련한 품질 감독 검사검역, 통관에 관한 새로운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함.

- 또 TBT·SPS와 관련한 양국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급 협의 채널을 신설하기로 함. TBT·SPS 분야는 현재 대중국 비관세 장벽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 관리하는 대중국 비관세 장벽 26건 가운데 13건이 TBT·SPS 분야로, 문재도 2차관은 “양국이 MOU를 통해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면 무역 원활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차대통령, ‘주권회복 희망’ 상하이 임정 재개관식 참석(9/4,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방문 마지막날인 4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재개관식을 거행한 상하이(上海)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함.
 - 이번에 재개관한 임시정부 청사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1926년부터 1932년까지 가장 오래 사용한 임정 건물로, 중국 내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독립운동의 본거지임. 또한, 백범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를 집필하기 시작한 곳이자, 한인애국단을 조직해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준비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함.
 - 박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의 주권 회복에 대한 희망을 주도했던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이에 기여한 중국 정부와 양승(楊雄) 상하이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함.

- **차대통령, “韓中, 12조 달러 지역경제 공동체로 거듭날 것”(9/4,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최고의 교역파트너를 넘어 12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지역경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박 대통령은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상하이 웨라톤호텔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지난해 체결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는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박 대통령은 이어 ▲FTA 효과 극대화 ▲협력 다변화 ▲글로벌 이슈의 공동대응 등을 양국이 지향할 미래 경제협력 3대 핵심방향으로 제시함.

- **朴대통령, “평화통일 꼭 이뤄서 진정한 광복 완성”(9/4, 연합뉴스)**
 -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 통일을 꼭 이뤄서 진정한 광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박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오늘 새롭게 단장한 임시정부 청사가 수많은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고 우리 역사의 뿌리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함.
 - 박 대통령은 이어 “오늘 재개관식은 우리 독립항쟁 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한중 양국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함.
- **靑, “방중 계기 비즈 상담회서 2.8억불 실질성과”(9/5,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열린 한·중 기업 간의 비즈니스 1대1 상담회 결과 총 1천428건의 상담이 진행돼 이 가운데 43건, 2억800천만 달러(약 3천100억 원)의 실질적 성과가 달성됐다고 청와대가 밝힘.
 -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1대1 상담회는 지난달 27~29일 상하이 한류상품박람회 계기와 지난 4일 한·중 비즈니스포럼 직전에 2차례 열림.
 - 1차 상담회에서는 우리 기업 107곳, 중국 기업 400여곳이 참석해 콘텐츠·화장품 등 한류상품 위주로 상담이 이뤄졌고 총 1천18건의 상담에서 15건, 1천1만 달러(약 110억원) 규모의 수출 및 라이선싱·투자진출 등의 계약이 체결됨.
 - 2차 때는 우리 기업 81곳과 중국 기업 198곳이 참석해 보건의료·항공부품·환경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상담이 이뤄져 410건의 상담에서 28건, 2억7천만 달러(약 3천억원)의 성과가 도출됨.
- **美 전문가, “한반도통일 中지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9/6, 연합뉴스)**
 -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한반도담당 선임연구원은 지난 3일 자 기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 열병식 참석에 대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함.
 -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중 관계는 양국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고 있지만, 20년이 넘는 긴밀한 협력에도 한국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 확보 측면에서 중국의 전략적인 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시 국가주석 입장에서 큰 성과라기보다는 중국의 협력

- 을 견인하고자 하는 한국 측의 복안이 실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함.
- 그는 “일부 전문가들이 ‘박 대통령이 방중을 결정한 것은 한국이 중국의 구심력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으나 이런 분석보다는 북중 관계가 전례 없이 악화된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더욱 강력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 측의) 포석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함.

다. 한·일 관계

- 산케이신문, 朴대통령을 암살된 명성황후에 비유한 칼럼 파문(8/31, 연합뉴스)
 - 일본 우익성향 매체 산케이 신문이 ‘미중 양다리 한국이 끊지 못하는 민족의 나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실은 고정 칼럼에서 “이씨 조선(조선시대)에는 박 대통령 같은 여성 권력자가 있었다.”며 박대통령을 일본 낭인들에 의해 암살된 명성황후에 비유함.
 - 칼럼은 명성황후를 ‘민비’로 칭한 뒤 명성황후 암살범이 당시 일본 공사의 지휘를 받은 일본 낭인들이었다는 사실도 거론하지 않았음.
 - 이어 “박 씨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암살되기 전 ‘민족의 나쁜 유산’을 필두로 사대주의를 들며 개혁을 모색했다.”면서 “공교롭게도 북한은 ‘나쁜 유산’을 혐오하는 자주 자립을 뜻하는 ‘주체사상’을 간판에 걸고 미국과 대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에도 반발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음.
 - 또 한국전쟁 때 당시 중공군이 참전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에 중국은 침략자인데 한국이 국가 전체의 도착(倒錯)에 대해 아픔과 가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도착에 대한 자각·감각이 없다.”고 주장함.
- 정부, ‘朴대통령 명성황후 비유’ 日언론에 삭제요구(9/1, 연합뉴스)
 -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일본 낭인들에 의해 무참히 암살된 명성황후에 비유한 칼럼을 게재한 일본 산케이 신문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기사 삭제를 요구할 방침임.
 - 정부 관계자는 1일 “해당 언론사에 기사 삭제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가능하면 빨리 산케이 측에 기사 삭제를 요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음.
 - 해당 칼럼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역사 왜곡과 역사수정주의의 DNA를 갖고 과거사에 대해 후안무치한 주장을 일삼는 일본 내 특정 인사와 이와 관계되는

언론사의 터무니없는 기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함.

- 日 산케이, 정부 항의에도 ‘명성황후 비유기사’ 삭제거부(9/1, 연합뉴스)
 -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일본 낭인들에게 무참히 암살된 명성황후에 비유한 칼럼을 게재한 일본 산케이 신문 측에 1일 항의하고 기사 삭제를 요구했으나 산케이 측이 거부함.
 -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이날 산케이 신문 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기사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산케이 측은 문제가 생긴 데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기사 삭제 요청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음.

- 日, 中 전승절 계기 韓 中 정상회담 경계 속 주시(9/2, 연합뉴스)
 -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방중 및 중일 정상회담 카드를 포기한 상황에서 만나는 한중 정상이 대 일본 역사문제에서 공조 전선을 재확인하는 그림을 경계하는 동시에 한국이 가을에 개최를 모색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 성사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는 상황임.
 - 우선 역사 문제의 경우 일본 정부는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 대해 한국과 중국 정부가 자국 언론 보도의 논조에 비해 한층 절제된 반응을 보이는데 안도한 바 있으며, 그런 만큼 일본 정부로서는 역사 문제가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불붙지 않을지 경계하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전망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며, 이는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중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아베 총리의 ‘아킬레스건’인 대 주변국 외교에서 성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日 언론, “정상회담으로 韓의 對中 접근 선명해져”(9/2, 연합뉴스)
 - 일본 언론은 중국의 항일 전승절(3일)을 계기로 삼아 2일 열린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의 대 중국 접근이 부각됐다고 보도함.
 - NHK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후) 중국을 방문한 것은 3번째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것은 6번째”라며 “한국이 최대의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급속히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함.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에 “중국이 군비 증강과 해양 진출을 계속하는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서양 국가와 일본이 정상의 참석을 보류한 만큼 중국에 접근하는 모습이 돋보이는 양상”이라고 부연함.
 - 교도통신은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날 회담과 별도로 오찬을 함께 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의 대 중국 접근이 한층 선명해졌다.”고 적었고,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은 박 대통령이 시 주석에 이어 리커창 총리와 회담하는데 대해 “일련의 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은 북한의 후원자가 돼온 중국과 공동으로 북한을 견제하려는 생각”이라고 분석함.
- **日 관방장관, “韓, 종전부터 中 접근 경향…발언 삼기겠다”(9/2,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논평하지 않았음.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고 열병식도 참관할 예정인 것이 한국의 중국 접근을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해석에 관해 “종전부터 그런 경향”이라며, “어쨌든 제삼국의 일이므로 정부로서 발언을 삼가고 싶다.”며 이같이 발언함.
 - 그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 전망에 관해서는 지난달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소개하고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로서는 중국·한국 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함.
- **日, 韓·中·日 정상회담 시기 거론에 ‘기대감’…과거사 협공 우려도(9/2, 연합뉴스)**
 - 일본 언론들은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올해 10월 말이나 11월 초를 포함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며 2일 시기를 거론한 것에 일제히 주목함.
 -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조율이 진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3국 회담 때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을 처음으로 성사시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보도함.
 - NHK의 취재에 응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중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에 관해 사전 통지가 있었으나 일본이 회담의 구체적인 시기에 관해서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음.

-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정부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3국 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수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 정상회담 등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사이에 어떤 형태의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함.
- 日 오사카 시장, “日군 위안부만 지적하면 안 돼” 궤변(9/3, 연합뉴스)
 - 일본 오사카시에 따르면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 오사카(大阪) 시장이 전쟁터에서의 성 문제와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미국 지방의회에 보냈음.
 - 하시모토 시장은 서신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여성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했지만, “일본만을 끄집어내서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것은 세계적인 이슈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한다.”고 언급함.
 - 하시모토 시장은 일본군만 여성의 인권을 짓밟은 것처럼 여겨 다른 나라 군에 의한 전쟁터에서의 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으며,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됐음에도 한국이 최근에 태도를 바꾸었다고 한국을 비난함. 또한, 그럼에도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더 져야 한다면 전쟁터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함.
- 日, 3국 정상회담 가시화 환영…외무성간부 “韓日회담도 될 것”(9/3,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10월말~11월초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데 대해 환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서울에서 열릴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임.
 - 일본 외무성 간부는 3국 정상회담의 개략적인 일정에 한중이 합의한데 대해 “일본으로서는 환영할 일”이라며 조기 개최를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다고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이 3일 보도함.
 - 이런 반응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공세를 자제한 사실과도 관련이 깊어 보임. 이번에 시 주석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일정에 동의한 것은 아베 담화를 걸고 넘어지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일본 정부의 반응에서는 안도감이 감지되었음.

- **日마이니치, “韓·中·日 3국 회담, 10월31일 또는 11월1일로 조율 중”(9/4,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르면 10월말 한국에서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의 첫 정상회담을 실현시킨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함.
 - 마이니치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올해 주최국인 한국이 10월 31일 또는 11월 1일에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중국과 일본에 타진하고 있다고 전함. 마이니치의 취재에 응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그 선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말함.
 - 한편, 2013년 2월 취임한 박 대통령과 2012년 12월 정권을 잡은 아베 총리는 역사인식 등을 둘러싼 갈등 속에 취임 후 아직 한 차례도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았음.

- **朴대통령, “역사 인정 않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9/4,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는 유구히 흘러 영원히 남는 것이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발행된 중국 인민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현재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각종 갈등과 대립을 평화와 협력의 질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간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는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함. 박 대통령은 특히 “이것이 전제될 때 과거 역사가 남긴 상처가 치유되고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박 대통령은 “한중 양국은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을 당했던 불행한 역사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함. 이어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과 관련, “이는 지난 세기에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던 ‘환난지교(患難之交)’의 역사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라면서 “중국 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중국 각지의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에 적극 협조를 해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함.

- **韓·中·日, 9/12~13일 도쿄서 3년여 만에 농업장관회의(9/4, 연합뉴스)**
 - 한중일 세 나라는 오는 9/12~13일 도쿄에서 3국 농업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함.
 - 이번 회의에서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동물로부터 감염되는

질병의 확산 방지 등에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임. 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분야에 대해 협의하고 협상에 속도를 내자는데 뜻을 같이할 전망으로 전해졌음.

- 한중일 농업장관 회의는 2012년 4월 한국에서 열린 이후 3년 5개월만임. 회의를 계기로 진행될 양자협약에서 일본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한국과 중국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함. 한편, 하야시 농림상은 “지속적인 농업의 성장,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회의 개최는) 큰 의미가 있다.”며 “개최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됐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힘.

■ 아베 총리, “韓日 정상회담 꼭 하고 싶다”(9/4, 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한국에서 열릴 전망이다인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꼭 하고 싶다.”고 밝힘.
- 아베 총리는 4일 요미우리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꼭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며 “이웃나라로 문제가 있을수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아베 총리는 또 “정치·외교·경제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양국 국민과 세계가 바라고 있는 것”이라며 “협력해서 대처할 국제적인 과제도 있다.”고 강조하고, 더불어 한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이자 경제 파트너”라고 부연함.

■ 日 연립여당 대표, 다음 달 韓·中 방문추진(9/4, 연합뉴스)

- 일본의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다음 달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니혼게이지아이신문이 보도함.
- 야마구치 대표는 한국을 방문해 일본의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와 일본 안보 법제를 설명할 계획이며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물밑 작업도 할 것으로 예상됨.
- 야마구치 대표는 10월 중순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 정당대표자 국제회의에 출석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부를 만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日 언론, “박 대통령, 중국과 미국·일본 사이 균형외교 펼치길”(9/5, 연합뉴스)
 - 마이니치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방중 외교와 관련해 한국이 중국과 미국·일본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외교를 하기 바란다고 밝힘.
 - 이 신문은 사설에서 박 대통령이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일본·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세력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국 외교의 모습”을 재차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서 이같이 논평함.
 - 산케이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외교가 한국과 중국의 밀월을 연출했다고 보도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美 정부, 中 사이버 산업스파이에 경제제재 추진(8/31,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해 전례 없는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현지 시간) 보도함.
 - 내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미국이 제재를 단행할 경우 가뜩이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을 놓고 커진 양국 간 긴장이 한층 격해질 것으로 보임.
 - 오바마 행정부는 제재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2주 안에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 주석의 방문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 제재가 거론되는 것은 미국 당국자들이 고질적인 중국 사이버공격 문제에 대해 얼마나 불만이 쌓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WP는 설명함.
- 美, 中-러 정보기관 ‘해킹 합작’ 정황 포착(9/1, 연합뉴스)
 -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외국 정보기관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정보기관들이 합세해 미국 정보기관 관리와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해킹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함.

- 윌리엄 에바나나 국가방첩센터(NCIX) 국장은 “외국 정보기관들이 합세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파일을 유출해 이를 정교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있는 사례를 포착했다.”며, “이들은 첨단 디지털 분석을 통해 해킹한 방대한 자료에서 미국 정보요원들이 누구며, 언제 어디로 여행 중인지, 누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등을 알아내려고 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함.
 - 이들 정보기관은 미국 기밀자료를 비롯해 의료보험 자료, 항공사 기록 등을 빼내 서로 해킹한 자료를 크로스 체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의 해킹으로 미국 정보기관의 해외 비밀공작에 기술적 조언을 하는 미국 내 엔지니어 과학자들의 비밀 네트워크 가운데 최소 1곳이 위협에 처했다고 미국 정보기관은 우려를 표함.
 - 이에 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 기관과 정부 웹사이트, 사회보장 번호, 재정 정보, 의료기록, 소셜 미디어 계정 등에 대한 강력한 사이버 방화벽 구축에 나서고 있으나 이들의 무차별 공격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신문은 전함.
- 시진핑 주석, 주변우려 의식 열병식 날 “군 30만명 감축” 선언(9/3, 연합뉴스)
- 시진핑 주석은 이날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개최한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 기념사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 30만 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공개함.
 - 시 주석은 “인민해방군은 조국의 안보와 인민의 평화로운 생활이라는 신성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신성한 사명을 띠고 있다.”고 강조함. 시 주석은 “중국은 결연히 평화발전의 길을 갈 것이며 중화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면서 “어떤 길을 가더라도 영원히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고 확장을 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함.
 - 시 주석의 병력 감축 선언은 중국이 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이는 중국의 ‘군사력강화’가 평화적 목적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위협론’ 등을 중심으로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경계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됨.

- 美 국방부, “美군은 세계최강…열병식은 우리 스타일 아냐”(9/4, 연합뉴스)
 - 피터 쿡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군은 세계 최강의 군대이며 사람들은 이를 의심하지 않는다.”며 “사람들은 미국의 힘, 우리 군대의 힘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퍼레이드를 통해 우리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함.
 - 중국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군사적 위용을 뽐내고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동평-21D(DF-21D)’ 등 첨단 신무기를 선보인 것을 비꼰 셈임. 쿡 대변인은 특히 “중국이 열병식에서 군사무기를 선보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놀랄 일이 아니며, 예측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다.”라고 의미를 축소함.
 -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적으로 ‘밀착’하는데 대해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와 관련한)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함. 국방부는 다만 중국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군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경계심을 나타냄. 국방부 대변인인 빌 어번 해군 중령은 포린폴리시에 중국의 “이번 병력 감축 발표는 그간 우리가 주시해온 중국의 포괄적인 군 현대화 장기 계획의 일환이라고 본다.”고 밝혔음.

- 美·中, 시진핑 방미 앞두고 ‘기싸움’(9/5, 연합뉴스)
 - 전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중 간 정상회담 논의 결과가 향후 국제사회 주요 이슈의 향배와 각 지역 정세,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미국과 중국은 시 주석의 방미를 2주 이상 남겨둔 시점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살바싸움’에 돌입한 모양새이며, 미국은 시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이 구금한 인권운동가와 종교인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인권문제와 관련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 다만 최근 보도와 양국 당국자들의 ‘견제구’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살바싸움의 성격도 강해 실제로 어느 수준의 협력에 합의하고 갈등을 노출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바. 미·일 관계

- 美, ‘韓·中·日 정상회담 개최’ 긍정 평가…日 끌어안기(9/3, 연합뉴스)
 - 중국 베이징에서 2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미국 정부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임. 기본적으로 역내 국가들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권장하는 정책적 기조이기도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일본과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이 결정적 요인임.

-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역내 국가들의 좋은 관계가 평화와 안정을 촉진한다고 믿는다.”며 “이는 양국의 이해는 물론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고 밝혔음. 국무부가 ‘역내 국가들의 좋은 관계’를 언급한 것은 한·중 관계 일반을 거론한 일반론적 수사를 넘어 한·중·일 ‘3자’의 관계 정상화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바임.
-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태평양전쟁 종전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미·일 관계를 “미·일 관계는 화해의 힘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밝혔음. 이는 전후 동맹관계로 바뀐 일본을 적극적으로 껴안는 메시지로, 중국이 3일 열병식을 통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려는 행보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것임.

사. 미·러 관계

- 美, 러시아 견제 위해 라트비아에 무인기 배치(9/1,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가 러시아와 인접한 라트비아에 무인기(드론) 2대와 항공병 70명을 임시 배치하는 계획을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AFP통신과 CNN방송 등 외신들이 보도함.
 - 미군이 라트비아에 사상 처음으로 무인기를 배치한 것은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동유럽의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에 위기감이 고조된 이후 부쩍 동유럽 지역의 군사훈련을 늘리고 있음.
 - 미 국방부 대변인인 제임스 브린들 소령은 이번 배치에 대해 “동맹인 라트비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 그리고 유럽의 파트너들에게 우리가 유럽 지역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키게 될 것”이라고 평가함.
- 美,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개입 의혹에 우려 표명(9/6, 연합뉴스)
 - 러시아가 붕괴 위기에 몰린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에 대한 군사지원을 본격화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섬.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러시아가 시리아 문제에 군사 개입한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힘.
- 수 백 명이 기거할 수 있는 규모의 조립식 주택이 아사드 대통령 선조들의 고향인 라타키아의 비행기 이·착륙장으로 최근 옮겨졌으며, 이동식 항공교통관제 시설도 시리아로 수송됐는데,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사드 정부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확장하려는 의도로 분석함.
- 한편, NYT는 시리아 내전을 외교적으로 풀려는 미국의 노력을 꼬이게 만드는 요소라고 전함.

아. 중·일 관계

- 中 언론, 반기문 사무총장 열병식 참석 문제 삼은 日에 “편협한 조바심”(8/31, 연합뉴스)
 - 중국 관영언론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 참석을 문제 삼은 일본 정부와 언론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31일 반 총장의 베이징 방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는 아베 신조 정부의 편협한 마음과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반영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본 정부의 ‘반 총장 때리기’는 다른 이들과 일본 국민이 불쾌한 과거를 잊었으면 하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런 자기기만과 자기정당화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질타함.
 - 관영 신화통신도 “아베 본인이 중국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서도 ‘각종 상황’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으면 그만인데 다른 국제 지도자의 일정에 대해서까지 이러쿵저러쿵하고 나섰다.”며 “이는 역사를 직시하지 않는 일본의 왜곡된 심리를 충분히 드러냈다.”고 비난함.
 - 또한, 일본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보도를 해온 데 이어 이제는 열병식에서 손뼉을 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하고 있다며 “일본이 조바심 내는 배후에는 아베 정부의 대결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함.
- 주일 中대사관 전승절 리셉션…“바른 역사인식은 관계개선 기초”(8/31, 연합뉴스)
 -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전승절) 70주년 행사를 사흘 앞두고 주일본 중국 대사관이 31일 러시아, 몽골 등 약 10개국의 일본 주재 대사와 일중우호협회

등 관계자 300명가량을 초청해 리셉션을 개최함.

-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는 이 자리에서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아시아 이웃 나라와의 관계 개선에 중요한 기초이며 미래를 개척하는 전제”라며 열병식을 비롯한 전승절 행사에 관해 “오늘날의 일본, 일본국민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함.
- 리셉션에는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와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참석했으며, 무라야마 전 총리는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도 참석한다고 교도통신은 전함.

■ 中 열병식 앞두고 미군-자위대 미국서 대규모 상륙훈련(9/2, 연합뉴스)

- 중국이 항일전쟁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3일)을 통해 대국 군대의 위용을 자랑하기에 앞서 미국과 일본이 대규모 상륙훈련을 합동으로 실시하며 동맹의 결속을 과시함.
- 자위대와 미군 약 4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중인 양측의 합동 훈련이 1일(현지시간) 공개됐다고 NHK가 2일 보도했으며, 훈련에서는 근해의 미군 함정과 자위대 이지스함이 양국 병력의 유도에 따라 함포 사격을 실시함.
- 지난달 31일 시작한 훈련에 일본 측에서는 자위대 대원 약 1천 100명과 호위함, 헬기 등이 참가했고 미국 측에서는 해병대원 등 약 3천 명의 병력과 해군 함정이 나섰으며 훈련은 9일까지 진행됨.

■ 日 정부, “시주석 기념사 화해요소 없어 매우 유감”(9/3,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3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항일 승전 기념행사에서 행한 기념사에서 양국간 화해를 언급하지 않은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힘.
-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 연설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행사가 소위 ‘반일(反日)’적인 것이 아니라 중일간의 화해 요소를 포함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중국 측에 전했는데, 이번 시 주석의 연설에서 그런 요소는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힘.
- 또한, 스가 장관은 또 “일본 정부로서는 전후 70년을 맞아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에 대해 미래 지향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행사에 대해 주시해왔다.”고

말함. 이어 “일중 간에는 국교정상화 이후 우호의 역사가 있고, 아베 총리와 시 주석의 사이에 2차례 정상 회담이 열리는 등 일중관계는 개선 기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임.

■ 남중국해와 괌·美본토 위협 미사일 대거 공개(9/3, 연합뉴스)

- 중국이 3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 도심과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진행된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대회 열병식에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공개함.
- 이들과 함께 현재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풍(東風·DF)-31A’를 재공개함. 동풍 31A의 사거리는 1만1천210km로 미국 본토 대부분에 도달할 수 있으며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음.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차세대 핵전략 ICBM ‘동풍(東風·DF)-31B’와 ‘동풍(東風·DF)-41’은 공개되지 않았음. 미사일 외형 공개시 사거리, 운항 속도 등 주요 제원에 관한 정보 분석이 가능하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추측임.
- 그러나 이날 공개된 IRBM인 동풍-21D(DF-21D)와 동풍-26(DF-26)의 경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역내 군사적 긴장과 관련, 전략적 가치 역시 가볍게 볼 수 없음. 두 미사일은 경제대국에 걸맞은 ‘군사굴기’ 의지를 반영하며, 특히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국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볼 수 있음.

■ 무라야마 전 日총리 몸상태 악화로 불참…입원(9/4, 연합뉴스)

-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관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91) 전 일본 총리가 몸 상태가 악화해 입원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중국 미디어를 인용해 3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무라야마 전 총리는 열병식을 참관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으나 컨디션이 악화해 참석을 보류함. 리샤오린(李小林)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이 3일 오전 무라야마 전 총리를 문병했으며 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향을 전했다고 마이니치는 덧붙임.

■ 中 열병식 공개 무인기, 이미 對日 정찰에 투입(9/4, 연합뉴스)

-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무인기 중 일부가 이미 일본을 견제하는 정찰 활동에 투입됐던 기종인 것으로 드러났음.

- 중국이 3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무인기 3종 중 BZK-005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무인 정찰기로 2013년 9월께 동중국해상의 일본 방공식별구역(ADIZ)에서의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고 북경신보(北京晨報)가 보도함.
- 당시 일본 방위성은 “BZK-005로 추정되는 중국의 무인기가 동중국해상의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침입했다”고 항의했으나,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연례적인 계획에 의한 정찰로 국제법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맞섰다고 신문은 전함. 한편, 중국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 정찰 임무에 투입된 무인기를 열병식에서 공개한 것은 ‘일본 견제’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분석됨.

■ “中, 국제질서 도전 자제해야”...日 신문사설, 일제히 견제구(9/4, 연합뉴스)

- 중국이 대규모 항일 승전 70주년 열병식을 진행한 다음날인 4일 일본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일제히 중국의 세(勢)과시를 견제함.
- 요미우리 사설은 중국이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사정에 두는 신형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을 공개한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막강한 군사력 과시는 중국의 군비 확장 노선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시진핑 정권은 전후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행동을 자제해야한다.”고 주장함. 또 니혼게이지아신문 (닛케이) 사설은 “‘항일’의 이름으로 1만 2천 명의 병사를 동원하고 수많은 최신 무기를 과시하면 일본은 대응 태세를 갖추고 싶어진다.”고 지적함.
- 아사히 신문 사설은 열병식에서 ICBM과 최신 무인기가 처음 공개된 사실을 소개한 뒤 “이번 행사에는 공산당 정권의 정통성을 호소하기 위해 항일 전쟁에서의 업적을 강조하는 동시에 군사력을 과시하는 목적이 담긴 것 같다.”고 적었음. 다만 아사히 사설은 2일 한중정상회담에서 3년만의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가 사실상 결정된데 대해 “영토와 역사 문제로 오래 정체됐던 동아시아 정상 외교가 겨우 움직이기 시작하려하고 있다.”며 “한중일은 싹트고 있는 기운을 중시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함.

■ 日 자민당, 中 열병식 참석 반기문 총장에 항의문 전달키로(9/4, 연합뉴스)

- 일본 집권 자민당은 중국의 항일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항의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자민당은 이날 당 본부에서 외교·경제 협력 본부와 외교부회 합동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항의문에는 반 총장의 행사 참석이 공정성을 결여한 처사라는 주장을 담은 방침임.
- 일부 참석자는 반 총장의 열병식 참석에 대해 “군축을 지향하는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유엔 분담금 지출 중단 및 감액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 총장의 해직을 요구하는 견해도 나옴.

-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은 중립기구 아니라 공정한 기구…역사 직시해야”(9/5,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3일 열린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데 대한 일본 측 항의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이나 유엔은 중립 기구(neutral body)가 아니다.”며 정면으로 반박함.
 - 반 총장은 전날 다수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어떤 유엔 구성원으로부터 그와 비슷한 우려의 말을 많이 들었다.”면서 “(그에 대해) 나는 이미 공개적으로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말함.
 - 이어 “역사로부터 정확하게 배우지 않는다면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며 “따라서 역사로부터 배우고 더욱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점에 내가 중국을 찾게 된 가장 주요한 목적”이라고 덧붙임.
 - 그는 또 “어떤 이들은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이 ‘중립기구’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중립기구’가 될 수 없다.”며 “유엔은 공정·공평한 기구(impartial body)”라고 강조함.

자. 중·러 관계

- 中-러시아, ‘밀착관계’ 과시…전방위 협력 다짐(9/3, 연합뉴스)
 - 시진핑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지난 7월 이후 2개월여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갖고 역사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관계 강화에도 합의함.
 - 시 주석은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에서 “양국간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확고하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제2차 대전의 아시아 및 유럽의 주요

전장으로서 최종적인 승리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가장 큰 나라들”이라고 양국 정상이 올해 전승 70주년 열병식에 서로 참석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함.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겨냥한 듯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부정하고 이를 바꾸려는 사람이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 문제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함.

- 한편, 시 주석은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지대 건설과 러시아가 이끄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의 접목을 통해 협력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자!”고 강조 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필요성도 역설함.

■ 열병식 '최고 귀빈' 푸틴, 빈손 귀국... '빛 좋은 개살구'(9/6, 연합뉴스)

- 푸틴 대통령은 열병식 전 환면 남쪽광장에 도착해 시 주석 내외의 영접을 받을 때는 마치 주인공처럼 맨 마지막에 등장했고, 환안면에 성루에서 열병식을 지켜 볼 때는 시 주석의 바로 오른편에 서는 등 줄곧 특별대우를 받음.
-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실속' 면에서는 환대를 받지 못 했다고 평가하며,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이번 방중 기간 기대했던 에너지나 군수 분야의 협력에서는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분석함.
- 푸틴 대통령의 '허전한 귀국길'은 최근 에너지 가격 하락과 러시아 루블화 가치 하락, 최근 중국의 증시 폭락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비롯됨.

차. 일·러 관계

■ 푸틴 대통령, “아시아에 역사 뒤집으려는 국가 있다”(9/2, 연합뉴스, 09:07)

- 푸틴 대통령은 최근 중러 양국의 관영통신사들과 한 인터뷰에서 “오늘날 유럽과 아시아에 2차 대전 역사를 의도적으로 뜯어고치려하고 일부 사건을 제멋대로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어떤 국가들은 전범과 그 앞잡이들을 미화하며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재판 결정을 도발적으로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함.
- 푸틴 대통령은 또 “(구)소련과 중국은 나치주의와 일본군국주의에 저항하고 반격한 맹우(盟友)”라며 “(양국은) 침략자의 주된 공격을 받아냈고 결국에는 승리 하며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줬다.”고 주장함.
-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러시아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에서도 ‘일본 군국주의의 죄행’, ‘항일승전 기념식 공동개최’ 등을 거론하며 함께 일본의 역사인식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미제 영화 보면 노동교화소行” 북한 재판 몰카영상 공개(9/5, 연합뉴스)
 - 북한에서 미국 영화를 시청하고 복제한 주민들이 공개재판을 받는 동영상의 외신을 통해 공개됐음.
 - 영국 텔레그래프는 지난 2013년 9월 북한의 공개재판 현장을 몰래 촬영한 12분 분량의 동영상을 4일 독점 공개했음.
 -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고는 각각 27세, 30세의 남성 두 명으로 미국 영화를 본 뒤 이를 복제한 혐의로 기소돼 9개월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음.
 - 이 재판은 군중 100여명 앞에서 북한 당국의 관계자가 차량에 설치한 확성기로 죄목을 읊는 방식으로 진행됐음.
 - 관사는 한 피고인에 대해 “자본주의의 썩은 사상에 빠진 자”라고 비난했으며 남파된 요원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음.
 - 이어 이들이 모두 청진의 화력발전소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이 동영상은 북한 당국이 미국 영화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을 얼마나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줌.
 - 북한에는 이전부터 한국 드라마나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밀수를 통해 반입됐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이후로는 114개 감시조가 신설돼 외국 매체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음.
 - 이번처럼 공개재판 영상이 공개된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 북한에서 공개재판 자체는 흔하지만 촬영하다가 적발될 경우 체포돼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임.

2. 북한인권

-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6~10일 한국 방문(9/2, 연합뉴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과 북한 간의 최근 관계변화와 북한 주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을 방문함.
 -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서울 방문을 통해 북한의

- 인권침해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며 “아울러 한국과 북한 간의 새로운 관계 발전이 북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한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D)의 권고에 따라 북한 인권상황 감시를 위한 유엔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가 지난 6월 서울에 설치된 이후 처음임.
 - 이번 방한은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한 것임.
- 리수용 北 외무상, 10월 유엔 총회서 기조연설…‘북한 인권 결의안’ 반대외교 할 듯(9/2, 조선닷컴)
 -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이달 말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70차 유엔 총회에 북한 대표로 참석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음.
 - 유엔 사무국에 따르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자성남 대사는 이번 총회와 ‘2015년 이후 개발 의제 채택을 위한 유엔 정상 총회’에 리 외무상의 참석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 리 외무상은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2015년 이후 개발 의제’ 회의에서 27일 오후 연단에 올라 북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는 총회에서는 다음달 2일 오후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 이번 총회에 참석하는 북한 대표단은 리 외무상 등 6명으로,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 있는 유엔 북한인권특사 관련 북측 대표 2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인권특사 관련 북측 대표들이 총회 대표단에 합류하는 것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지난해처럼 북한 인권 결의안이 상정될 것에 대비한 조치로 보임.
 - 이들은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0차 인권이사회 회의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뒤 뉴욕으로 와서 북한 인권 결의안 상정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임.
 - 리 외무상의 유엔 총회 참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해 북한은 15년 만에 총회 파견 대표단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리 외무상을 파견했으나, 지난해 리 외무상은 북한 인권 결의안의 상정을 막는 데는 실패했음.
 -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인권’ 유럽의회서 논의한다(9/2, 연합뉴스)
 -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실태를 다루는 토론회가 유럽의회에서 열림.

- 이승주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카티 피리 유럽의회 의원이 공동으로 오는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음.
 - 이 연구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인권 착취의 심각성을 유럽의회에 알리고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유럽 국가 가운데 폴란드가 해외 노동 인력을 수입하고 있다”며 “노동 환경에 대한 점검 같은 조치를 가장 잘 취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한 국가부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토론회에서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9개국에 파견한 해외 노동자 출신 탈북자 20여 명의 심층 취재를 바탕으로 올해 초에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소개할 계획임.
 - 아울러 국제인권단체 국경없는인권(HRWF)의 윌리 포트레 대표가 참석해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유럽의회 정책 방향을 제안할 예정임.
 - 포트레 대표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5~6만 노동자를 20여 개 국가에 송출해 연간 2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이어 “북한은 해외 파견 노동자 임금을 최대 90%까지 착취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유용하고 있다”며 “유럽국가들과 국제인권단체가 협력해 이런 ‘노예노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 워싱턴서 다음달 27일 대규모 북한인권 토론회(9/4, 미국의소리)
- 미국 워싱턴에서 오는 10월 27일 대규모 북한인권 토론회가 열림.
 - 이 토론회는 국제변호사협회 북미지부와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 디펜스포럼, 북한자유연합, 북한인권위원회,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공동 주최함.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할 예정임.
 - 하루 종일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행정부와 의회,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해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주최 측이 밝혔음.
 - 주최 측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권에 대한 우려보다 안보를 우선시했던 미국의 대북정책은 성공하지 못했으며, 인권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북한의 도전에 대한 보다 원칙적인 접근법일 뿐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 기존의 대북 제재와 새로운 제재안, 과거와 현재의 북한 인권 침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 북한인권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3. 탈북자

- LA서 탈북가정 자녀 돕기 장마당(9/4, 자유아시아방송)
 -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여성 목사회가 지난 2일 탈북자 가정 자녀를 돕기 위한 장마당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한인여성목사회가 탈북 가정의 자녀들을 돕자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강지원 회장이 지난해 탈북자들을 만나면서 이뤄졌음.
 - 강 회장은 그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한민족, 형제 자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고 싶었다고 함.
 - 이번 장마당은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한인들 뿐 아니라 탈북자들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하고 있음.
 - 장마당에는 탈북자들이 직접 김치나 만두도 만들고, 음식이나 물건도 팔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보여줄 계획임.
 - 김 씨는 탈북 후 미국에 정착해 살지만 아직 외로운 탈북자가 많다고 함.
 - 이번 장마당이 미국의 문화 장벽을 극복하고 생소한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한국 내 탈북민 보건의료 지원 논의 토론회 열려(9/4, 미국의소리)
 -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즉 하나원이 함께 하는 탈북민 보건의료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음.
 - 이번 토론회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탈북민 보건의료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통일 이후의 북한 주민 대상 보건의료 정책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음.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일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합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자산이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토론된 것들이 건강한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정희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간호 사무관은 하나원

- 입소교육생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현황을 발표했다.
- 전정희 사무관은 이어, “하나원 교육생 건강관리를 체계적이고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원 부속의원인 하나의원을 정규의사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간호인력을 정비해 종합의료지원센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정희 사무관이 하나원에서의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 했다면,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통일보건 의료센터장은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편입된 이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 전정희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간호사무관과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통일보건 의료센터장의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하나원에서의 의료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하나의원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국립서울병원 등에서의 탈북민 보건의료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4. 이산가족

- 남북, 이산상봉 실무접촉 명단 교환(9/3, 자유아시아방송)
 - 남북은 오는 9월 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예정이며, 이를 위해 남북은 지난 2일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다.
 - 이번 실무접촉에선 남과 북에서 각각 3명씩 대표로 나오는데, 북측에서는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 남측에서는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이 수석대표로 나선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3일 밝혔다.
 -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때도 수석대표를 맡은 바 있음.
 -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상봉 날짜와 인원, 숙소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이런 가운데 남측의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일 이산가족 생사확인 추진센터를 개소하고 확인 작업에 나섰다.
 - 현재 센터에는 상담 요원들이 상주하며, 9월 15일까지 남측 이산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조사 대상은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 6만 6천여 명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는 현재까지 금강산 면회소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 통일부 관계자는 “장소는 북측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금강산에 면회소가 있기 때문에 북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통상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자를 고르는 데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봤을 때 이번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10월 중순이나 말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5. 납북자

- 특이사항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7. 대북지원

- 영 NGO “북, 수해 복구 지원 요청”(9/1, 자유아시아방송)
 - 셸터박스(ShelterBox)는 북한 측으로부터 최근 있었던 홍수와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 셸터박스의 앤드루 애번스 국장은 이날 서면으로 “북한 당국이 영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수해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 그는 이에 따라 “요청에 따른 대북 지원을 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현재 북한의 무역성과 접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 애번스 국장은 하지만 “자체적인 검증 과정과 승인 절차를 거쳐 대북 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편, 셸터박스는 지난 5월 북한의 지난해 홍수 피해의 복구 지원을 마무리하고 이번 홍수와 관련 수해 지원 요청과 피해 상황 파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음.
 - 이 기구는 지난 5월 함경남도 지역에 지난해 돌발 홍수로 피해를 입은 북한 수재민이 거처할 수 있는 텐트, 즉 임시천막이 포함된 구호상자 400개와 담요, 태양 전등, 물통 등 생필품을 제공했음.
 - 셸터박스는 2007년 홍수 피해를 당한 북한 수재민에게 텐트가 포함된 구호상자 200개를 전달하며 대북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 아일랜드, 2년째 대북지원 '0'(9/1, 자유아시아방송)
 - 아일랜드 정부의 대북지원이 2013년 이후 2년째 중단됐음.
 - 아일랜드 국제지원청(IrishAid)이 지난달 공개한 2014연례보고서를 보면 아일랜드 정부의 인도주의 지원대상국 명단에 북한이 포함되지 않았음.
 - 아일랜드 정부는 2011년 6월 약 36만 달러, 2012년 8월 약 25만 달러, 2013년 6월 약 33만 달러를 기부하며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사업에 참여했음.
 - 2000년 이후 아일랜드 정부가 지원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금은 약 800만 달러에 이룸.
 - 아일랜드 국제개발청 대변인은 자체 지원체계를 통해 파악한 북한의 식량과 인권 상황을 바탕으로 대북지원 규모를 결정하지만 지난 2년간 북한이 지원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아일랜드 정부는 북한의 홍수 피해가 컸던 2012년과 2013년 여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유엔의 영양지원 사업을 지원했음.
 - 아일랜드 국제개발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개발지원을 중단했으며 이후 유엔 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만 진행하고 있음.
 - 아일랜드 국제개발청 대변인은 향후 대북지원의 시기와 규모 등 추가 지원과 관련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에서 식량 구호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들과 협의를 진행한 뒤 지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 NGO, 북한 어린이들에 13만 달러 상당 식량 지원(9/2, 미국의소리)
 -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가 영양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13만 달러 상당의 영양쌀과 감자 영양식을 보냈음.
 -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한-슈나이더 국제어린이재단'의 아더 한(Arthur Han) 대표는 지난달 17일 50만 7천 킬로그램의 영양쌀과 감자 영양식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지원한 영양쌀은 쌀과 콩 등 식물성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혼합물을 포장한 것으로 미국의 구호단체 '피드 마이 스타빙 칠드런'이 기부했다는 설명임.
 - 한 대표는 또 '포테이토 D'라 불리는 감자 영양식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A, 섬유질이 풍부해 설사와 탈수증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 대표에 따르면 이번에 보낸 영양쌀과 감자 영양식은 미화 13만 달러 상당으로, 평성과 황주, 동림 등 4개 인민학교 어린이 3천1백여 명에게 지원됨.
 - 한 대표는 오는 10월에도 영양쌀 27만 5천끼를 추가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슈나이더 국제어린이재단은 올해 초에도 영양쌀 54만 4천끼를 북한에 지원했었음.
- EU “라선 홍수 복구 15만 유로 지원”(9/2,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연합 대변인은 국제적십자사의 지원 요청에 따라 라선 지역의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금 15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대변인은 이번 지원금으로 정수와 위생 사업, 이재민을 위한 피난처와 식품 이외의 구호물자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럽연합은 비상대응조정센터를 통해 라선의 홍수 현황을 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대변인은 강조했다.
 - 국제적십자사와 조선적십자회 등 구호단체가 식수용 정화제, 담요, 텐트 등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라선의 외국인과 주민들도 허리높이까지 쌓인 진흙을 치우는 등 복구 작업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당국이 2천만 달러 가량의 복구 지원금을 약속했고 오는 5일에는 10만 여 명의 북한군을 라선 지역 홍수 피해 복구에 투입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다고 한 여행사 관계자가 밝혔다.
 - 앞서 북한 언론은 북한군을 동원해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이전에 복구작업을 마치라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명령이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여행사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지 외국기업 직원과 가족들에게 쌀과 식용유 등을 제공하는 한편 인근 빵공장에 설탕 등 재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WFP도 홍수피해 추가지원계획(9/2,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은 지난달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73만 3천500여 명에 3천 785톤의 식량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 북한 주민에 제공한 식량은 자체 생산한 영양강화식품이었다고 다미안 킨 세계식량계획 아시아 지역 대변인은 설명했다.
 - 한 달 전인 지난 7월과 비교하면 지원을 받은 주민의 수는 약 61만 6천500명에서 11만 7천 명 늘었고, 지원한 식량 규모도 3천231톤에서 554톤 증가했음.

- 2013년 11월 4천223톤을 분배한 이후 21개월 중 가장 많은 양임.
 - 킨 대변인은 라선 지역의 홍수와 관련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이달 중 북한에 있는 유엔 구호기구들과 협력해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지난달 22일과 23일 북한의 특별경제구역인 라선시에 폭우가 내리 40여 명이 사망하고 가옥 1천여 채 이상이 파손되고 1만 1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의 관영방송은 이례적으로 피해 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음.
 - 세계식량계획의 킨 아시아지역 대변인은 홍수 복구 지원과 관련해 ‘지역개발참여’(Food For Community Development)를 통한 식량 지원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피해 복구를 위한 작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방식임.
 -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2013년 7월부터 2년 기한이었던 대북영양지원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려 했지만, 6개월 연장해서 올해 말까지 북한의 취약계층 18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함.
- UN, 북 수해 실사 파견…지원 잇달아(9/3,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유엔 기구들이 9월 3일 북한 당국에 의해 초청돼 라선 수해 지역의 공동 실사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이어 “북한 당국이 라선 수해 지역에서는 최근 폭우와 홍수로 1만 1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40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하며, 지원 요청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이 기구는 “이번 수해 지역 공동 실사팀에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기구들과 국제적십자사, 그리고 국제 비정부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 또 인도주의업무 조정국은 “수해 지역 북한 주민 대부분이 현재 공공시설이나 임시 시설에 대피해 머물고 있으며, 음식, 식수뿐만 아니라 물과 위생 시설에 접근할 수 없다”고 전했다.
 - 현재는 유엔 기구들과 다른 인도주의 단체들이 미리 북한 적십자사에 비축해 뒀던 구호품을 분배했으며, 조선 적십자사는 임시 거처용 천막, 조리 세트, 위생 구호품, 또 식수 정화제 등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 특히 이 가운데 유엔아동기금은 “북한의 보건성이 긴급 보건 구호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이에 따라 보건 구호 세트 6개를 보낸다”고 전했다.

- 그러면서 유엔아동기금 대변인실은 “하나의 보건 구호 세트는 북한 주민 1만 명을 3개월 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특히 유엔아동기금은 “현재 식수와 위생 전문가들이 수해 현장에 파견된 상태”라면서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수해 지역 어린이를 위해 식수와 위생, 그리고 영양을 위한 지원이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유럽연합, 북한 수해에 17만 달러 지원…국제사회 지원 잇달아 (9/4, 미국의소리)
 - 유럽연합과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들이 북한 홍수 피해 지원에 나섰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 대변인실은 최근 북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15만 유로, 미화 17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 대변인실은 이번 지원이 국제적십자사 IFRC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수재민들에게 깨끗한 물과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임시 거처 등을 마련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현재 ‘긴급대응 조정실(Emergency Response Coordination Centre)’을 통해 북한의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도 최근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6만여 명이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긴급 의료구호 세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 유니세프 아시아사무소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함경남도 지역에 긴급 의료구호 세트(Emergency Health Kits)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 드 보노 대변인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현재 수질과 위생 전문가 한 명을 현장에 파견해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 유니세프는 어린이들의 위생과 보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수질과 위생, 영양과 관련된 물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 국제적십자사도 북한 조선적십자회의 요청에 따라 함경남도과 평양 구호물자 창고에 보관돼 있던 방수천과 천막, 조리기구, 위생용품과 수질정화제 등을 피해 지역으로 보냈다.
 - 힐러 구드온손 국제적십자사 대변인은 조선적십자회에 기술적 지원을 하는 한편 추가 피해에 대비해 라선 시 인근 창고에 구호물품을 마련해 두었다고 밝혔다.

- 국제적십자사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북한 수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일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24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음.
- 또 8월 22일에서 23일 함경북도 라선시 일대에 내린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40여 명이 사망하고 1만1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국제적십자사는 밝혔음.
- 이런 가운데 북한은 유니세프 등 유엔 기구와 유럽의 일부 대북 구호단체들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북한 당국은 하지만 미국의 민간단체에는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인 사마리탄스 퍼스 대변인은 수해와 관련해 북한 측으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도 받은 바 없었고,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음.
- 미국의 민간단체 아메리케어스도 북한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수해 지원 계획도 없다고 밝혔음.
- 이 단체는 최근 지원한 5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등은 미리 예정된 것이었다며, 10월에 북한에 도착한다고 밝혔음.

8. 북한동향

- 미국이 의도적으로 알콜·마약중독 미군 병사들을 이라크 등 파병을 통해 “인권유린, 인간 살육전을 벌였다”며 ‘인권유린 주범·왕초인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비난(9.1,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미국을 인권법정의 피고석에 꿰어앉혀야 한다)
- ※ 미국 잡지 ‘포린 폴리시’, 201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병사 ‘베일즈’의 알콜·마약 복용상태에서 민간인 16명 살해 자료 공개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